

코로나19 경기 부양 기대감에 광주·전남 4월 주식거래량 최고

9억5554만주 전월비 23.7% ↑ ... 거래대금 7조원 15.4% ↑
지역 상장사 시총 21조8432억 ... 전달보다 3억6265억 증가
투자자, 코로나19관련 제약주·삼성전자·한진칼 등에 관심

'개미 열풍'이 불며 지난 달 광주·전남 주식거래량이 최고를 경신했다. 7일 한국거래소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0년 4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동향'에 따르면 주식거래량은 9억5554만주로 전달에 비해 23.7% 증가했고 거래대금은 6조9028억원으로 전월 대비 15.4% 늘었다. 4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량은 지난 2018년 4월 6조9296만주를 기록한 뒤 2년 만에 9억주를 넘기며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지역 주식거래량은 1월 4만 8821만주→2월 5억7342만주→3월 7억 7232만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율을 보면 1월 29.2%, 2월 17.5%, 3월 34.7%, 4월 23.7% 등 매달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거래량 증가율은 전체 시장 증가율(8.7%)을 웃돌았다. 전체 거래대금은 전달보다 32조4581억원(-5.8%) 감소한 반면, 지역 거래대금은 9185억원(15.4%)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 30개사 시가총액(시총)은 21조8432억원으로, 전달(18조2167억원)보다 3조6265억원(19.9%)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증가율은 평균 증가율(11.4%)을 상회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금호산업 시총은 우선주를 포함해 6800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4600억)과 광주신세계(+1조3500억)도 평균을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코스닥의 경우 우리손에프앤지, 서암기계공업, 고려시멘트, KPX생명과학 등 4곳은 시가총액 증가율이 50%를 웃돌았다. 지난 달 광주·전남 주식거래량 비중은 전달보다 0.2%포인트 감소한 1.4%를 차지했다. 거래대금도 0.1% 소폭 감소

한 1.3%를 나타냈다. 광주거래소 측은 "지역 거래량과 거래대금 비중이 감소한 것은 상황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단기매매보다는 중장기 보유 경향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며 "이는 전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코스피에서는 변동성 확대관련 리스크 대응을 위해 인덱스 인버스 종목 및 코로나19관련 제약주, 삼성전자, 경영권 분쟁관련 한진칼 등이 전체 투자자 및 지역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광주거래소는 분석했다. 또 코스닥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진단키트 등 재료업종과 대북교류 기대 등으로 투자자들의 거래가 집중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적금 깨고 생활비 대출... 월급쟁이 잔혹사

코로나19에 42% 급여손실
무급휴가 16%·삭감 13% 순

코로나19 국내 확산 뒤 직장인 3명 중 1명은 무급휴가나 급여삭감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8%는 급여가 줄면서 예·적금을 꺼거나 대출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업정보포털 인크루트가 4월 20~28일 직장인 5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8%는 "코로나19 이후 급여변동 사유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무급휴가가 16.3%로 가장 많았고 ▲급여삭감 및 반납(12.5%) ▲권고사직(4.0%) ▲강압적 해고(1.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3.8%는 권고사직 후 복직 제안을 받았다고 답했다.

무급휴가에 들어간 평균 기간은 28일이었고 가장 116일(2월3일~5월31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삭감된 응답자들은 평균 4분의 1에 달하는 24.9%를 깬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가 줄면서 43.8%는 "가계에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일부는 급여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적금 해지와 대출을 택했다. 예·적금 해지(중복응답) 응답률이 16.8%로 가장 많았고 ▲펀드·보험 상품 해지(7.8%) ▲생활비 대출(13.3%)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림(5.5%) ▲아바이트 등 부업을 시작(13.1%) 등도 있었다. 평균 대출 필요금액은 453만원으로, 많게는 3000만원 이상 목돈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비양극화 여전... 102만원 vs 422만원



통계청 지출 가계동향 조사 교육분야 48만 2천원 차이

지난해 소득 하위 20%가 월 평균 102만원을 쓰는 반면 상위 20%는 422만원 소비하며 이 두 계층의 소비차는 4.1배에 달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는 월평균 102만4000원을 쓴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월평균 422만1000원을 소비해 이 두 계층의 소비차는 4.1배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 분야 월평균 소비지출은 1분위는 2만2000원, 5분위는 50만4000원으로 소비자가 22.9배에 달했다. 1분위는 평균 가구원 수가 1.41명에 불과하고 가구주 연령은 61.9세로 높은 반

면, 5분위는 가구원 수가 3.30명으로 많은 대신 가구주 연령이 49.4세로 낮았다. 1분위의 경우 식품·비주류음료 지출이 19.9%(20만3000원)로 가장 많았고 ▲주거·수도·광열 19.5%(20만원) ▲보건 12.9%(13만2천원) 순으로 높았다. 5분위는 음식·숙박(14.2%·59만8000원)에 돈을 가장 많이 썼고, 교통 12.8%(54만1000원), 교육 11.9%(50만4000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가구(1인 이상)의 가구당 월평균 명목 소비지출 규모는 245만7000원이었다. 지출 비중은 음식·숙박 14.1%(34만60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 13.5%(33만3000원), 교통 12.0%(29만6000원), 주거·수도·광열 11.3%(27만7000원)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소비지출을 보면 40대가 319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60세 이상은 165만9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삼성전자 주주 2만3440명... 전체 4.1%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 삼성전자 주주는 전체의 4.1%인 2만3440명으로 나타났다. 7일 예약결제된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삼성전자 주주는 광주 1만3087명·전남 1만353명 등 총 56만840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삼성전자 주주 3명 중 2명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는 32.2%인 18만2882명으로 1위였고, 경기(27.3%)와 인천(4.3%)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 비율은 63.8%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 주축인 40대가 27.4%(15만5977명)으로 가장 많고 가장 많고 50대(22.6%), 30대(20.0%), 60대(12.4%), 20대(7.0%), 70대(4.9%), 20대 미만(3.2%), 80대 이상(1.1%)이 뒤를 이었다. 보유주식 수로는 10~50주 보유자가 17만4547명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다. 이어 100~500주(24.3%), 10주 미만(18.1%), 50~100주(14.6%), 500~1000주(5.4%), 1000~5000주(4.9%), 1만주 이상(1.3%), 5000~1만주(0.7%) 등 순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코로나19 의료진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



송중욱(가운데)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7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며 코로나19 의료진에 감사와 응원을 전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덕분에 챌린지' 동참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 임직원들이 이번에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광주은행은 7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코로나19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을 수여하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에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며 "광주은행도 지역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전국 영업점 인금 음식점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선결제했고, 이들 가게는 시행 5일 만에 4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린다며 "광주은행도 지역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전국 영업점 인금 음식점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선결제했고, 이들 가게는 시행 5일 만에 4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